

날짜: 5785 년, 여섯째 달 18 일 (9 월 11 일, 2025)

토라 문: 키 타보

주제: 여호와와 토라의 부르심

신명기 29 장 2 절에서 토라는 여호와 권능자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토라를 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고 묘사합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이 "부름"을 단순한 선포 이상의 것으로, 영적인 고양으로 이해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가르치시기 이 전에, 먼저 부르심을 통하여, 모세는 더 숭고한 의식의 세계로 올라가게 되었으며, 그 후에 예언을 받을 자격이 있게 되었음을 가르칩니다. 또한 이 부르심은 애뜻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으시며, 그로인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초대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러한 빈틈없는 친밀함은 여호와와 그의 충성된 종 모세의 소통을 더욱 풍요롭고 풍성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 후에 여호와께 받으신 그 애뜻한 친밀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같은 목적하에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 모세께서 배우신 바를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치기 전에, 그는 그들간에 야특하고 친밀한 사랑의 유대감을 먼저 형성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 세계를 알리야, 숭고히 높이고 그들이 여호와 권능자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랍비 모르데하이 로고는 이로부터 실질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토라를 가르치거나 인간의 양심에 기저한 숭고한 도덕적 규례들을 가르치는 자들은, 먼저 듣는자들과의 감성적인 유대감을 형성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감성적 세계의 유대감을 형성하지 않으면 듣는 자 중에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하는 뜻의 전달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하스 아니는 여기에 대하여 다른 해석을 제시합니다. 그는 먼저 부르심을 하신 이유는, 소명을 교사가 수업 시작을 알리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소개 방식은 듣는 자에게 지적, 감정적으로 미리 준비할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사실을 갑자기 듣게 되면, 그것을 즉각 이해하거나, 깊이 기억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토라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그들을 미리 부르셨던 두 가지 중요한 순간을 언급함으로써 이 점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합니다: 한 번은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는 여정의 시작점인 시나이산에서 계시를 받으셨을 때이고, 다른 한 번은 약속의 땅에 들어 가기 직전 곧, 여정이 끝나실 무렵이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모세는 백성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도록 그들을, 물리적 영적으로 준비시키시는 수고였는데, 수고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후손을 생명의 빛인 여호와의 말씀, 토라로 하나되도록 묶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특별한 준비력과 집중력을 요구했습니다.

신명기 29 장 2 절의 토라 말씀의 두 번째는 민족적 차원의 수용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써, 여호와와의 도우심으로, 다음 구절들에서 설명됩니다. 미드라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여호와의 성회로

모이는 처소에서 각 [최소] 몇 구절을 봉독 올려야 하는지요? 미드라쉬는 세 구절이라고 답하여 기록합니다. 여기의 기준은 토라가 주어진 차례로써 모세, 아론, 미리암 셋을 지칭합니다. 이 정의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합니다: 첫째: 이 논의가 신명기 29 장 2 절과 어떠한 관련이 있습니까? 둘째: 토라는 어떤 방식으로 미리암을 통해 주어졌습니까?

모세는 백성을 불러 모은 후,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독특한 상황을 상기시켰습니다. "너희 옷은 낡아지지 않았고... 너희는 떡을 먹지 아니하였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느니라" (신 29:4-5). 모세가 이 순간에 이러한 세부 사항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그들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해 토라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하도록 준비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인들은 여호와의 토라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자들에게만 주어졌다고 가르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는 다시 말해, 오늘 먹을 양식 곧, 물질적인 걱정, 즉 생계 유지의 부담에 묶이지 않고 초월한 그 한 세대만이 토라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 한 세대는 물리적인 것에 묶이지 않고 영적인 성숙과 성장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를 가능하게 한 기적들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습니다.

- "너희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느니라" -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그들의 옷을 깨끗하게 하고 보존해 주었기 때문입니다(아론의 공로입니다)
- "너희가 빵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 만나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모세의 공로로)
- "너희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느니라" - 미리암의 우물에서 양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미리암의 공로입니다)

여호와 이루신 이 세 가지 기적 덕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명인 토라를 알게 되었고, 이 각각의 기적은 모세, 아론, 미리암이라는 통로들의 순종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여호와의 토라가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는 이 세 사람 모두를 통한것임을 알수있습니다. 혈통 남유다 태생으로 모이는 회당에서 토라를 낭독할 때 세 구절을 읽어야 한다는 미드라쉬의 규정이 정하여진 백그라운드입니다.

따라서 모세 아론 미리암 세 지도자들 각각에 맞추어서, 최소한 세 구절을 읽는 것에 대한 할라카적 논의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이들 각각이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거룩한 성회로 이끄시려고 하신 것 대한 보상이라는 사실에 기초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토라를 심장과 머리에 새김 받을 수 있는 한 민족의 능력 그리고, 그 육신 가운데에 이루어졌던 모든 계명의 순종은, 살아계신 말씀이시며 빛이신 나사렛의 도, 여호슈아를 부분적으로 예표 하셨던 모세, 아론, 미리암의 순차적이며, 고유한 영적 지도력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반영합니다.

shalom

[www.kohebroots.com](http://www.kohebroots.com)

“여호슈아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